

광주환경공단 효천하수처리장 ‘수상한 입찰’

오염수 분리막 교체 1계열 입찰
“자재 확보 업체만 유리” 기준 논란
짜짜미 의혹에 5개 중 3개사 포기
추가발주도 추석 연휴 기간 공고
업체들 “질의서 제출 기회 박탈”
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제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효천지구 개발과 함께 658억원을 들여 조성한 광주효천공공하수처리장의 오염수를 처리하는 ‘분리막(필터 역할) 교체 사업’을 놓고 ‘특정 업체 밀어주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업체에선 사업 주체인 광주환경공단이 사용 연한에 따라 교체하는 분리막 입찰공고를 내면서, 특정 업체에 유리한 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업체의 입찰 참여를 가로막았다는 주장 등이 나오고 있다.

6일 광주환경공단 등에 따르면 효천공공하수처리장은 LH에서 효천지구 개발 당시 원인자 부담으로 658억원을 투입·건설해 2013년 6월부터 가동 중이며, 일일 처리 용량은 1만6000㎥에 이른다. 4000㎡씩 4개 계열(구간)로 나눠 운영되고 있다.

당시 사업을 맡았던 대우건설은 자체 분리막(DMBR) 공법인 생물학적 처리와 막을 이용해 처리수를 분리하는 공법을 적용했는데, 하수처리장을 정수기로 봤을 때 분리막은 정수기 필터 역할을 맡는 방식이다.

환경공단은 일반적으로 10년 주기 분리막 교체에 따라 올해 1계열을 시작으로 2·3계열 2024~2025년, 4계열 2029년으로 나눠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공단은 지난 6월 처음으로 공고액 18억 1000만원인 규모의 1계열 교체 사업 입찰을 완료하고, 오는 8~11일 35억 6300만원 규모의 2·3계열 사업자 선정이 예정돼 있는데 1계열에 이어 2·3계열 입찰에서도 여러 차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광주환경공단이 정량적 평가(20점) 중 사업 보증 평가(10점) 항목에서 자재 확보(6점) 평가 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2013년 효천지구 개발과 함께 광주시 남구 임암동에 조성한 효천공공하수처리장 전경.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항에 ‘물품 제작에 필요한 원자재를 보유하거나 수급이 가능한 능력을 평가’한다고 명시해 놓고는, 하위 항목에 ‘자재 확보율’만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점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업체에선 ‘자재 확보율’만 평가 기준으로 제시한 것과 관련해, 전체 사업비의 60% 이상을 차지하는 분리막 자재를 미리 확보하고 있는 업체에만 점수를 주겠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대부분 1계열 입찰 참여를 포기했다고 주장한다.

광주환경공단 측은 “자재를 보유하지 않고 공급할 수 있는 업체도 자재 수급·공급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점수를 인정하고 있으며, 실제 1계열 교체 입찰에서도 그렇게 점수를 부여했다”면서 “이번 2·3계열 입찰도 마찬가지로 방식”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환경공단은 1계열 입찰 당시 ‘분리막 확보에 대한 가점부여는 부당하다’는 업체의 질의에 대해 “적합하고, 변경사항은 없다”며 사실상 질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A사는 당시 광주환경공단에 질의서를 보

내 “(사업)발주가 없으면 물품(분리막)의 소재 또는 재고를 최소량만 보유한다”며 “분리막 소재 확보에 대한 가점부여는 부당하다”고 질의했으며, 환경공단은 답변서에서 “평가 항목별 점수는 적당하다고 판단되며 변경 사항은 없다”고 답했다.

결국 1계열 입찰 참여를 검토해 온 5개 업체 중 자재를 확보하고 있는 업체 1곳 등 2곳만 입찰에 참여하고, 나머지 3개 업체는 입찰 참여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입찰을 포기한 업체 관계자는 “공사비 대부분을 차지할 정도로 고가인 분리막을 재고 처리 위험 등을 감수하고, 미리 확보하는 업체는 없다”며 “당시 업체에선 특정 업체를 염두에 둔 입찰이라는 말이 퍼다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이어진 30억원대 규모의 2·3계열 분리막 입찰 공고도 늦게야 더 커지고 있다. 이번에도 1계열 분리막 공고와 같은 방식인데, 입찰 사전규격 공고기간이 이례적으로 추석 연휴가 긴 지난 9월 12~18일 진행됐기 때문이다.

업체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사전 규격 공고는 공고 이후 질의 등 업체의 의견 제시가 가능하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는 데 반해 이번 공고는 추석 연휴 직전에 이뤄졌다. 9월 14~18일까지는 추석 휴일로, 사실상 공고를 게재한 12일을 제외하면 13일 하루만 공고된 것이나 다름없다. 업체들은 사전 공고 일정을 놓치는 바람에 1계열 입찰 때 제기했던 질의서 제출 기회마저 박탈당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특히 2·3계열 분리막 교체 사업 기간이 계약일로부터 12개월로, 사업 기한이 촉박하지 않다는 점에서 업체들의 민감한 질의를 피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광주환경공단 관계자는 “사전 규격 공고는 발주 계획 확정 직후 한 것으로, 일부러 추석 연휴가 겹치게 공개한 것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지난해부터 환경공단의 부실 용역을 지적해 온 최지현(민중·광산1) 광주시의원은 “사전 규격 공고를 명절 연휴와 겹쳐 낸 것만 보더라도 의심을 받을 만하다”면서 “관련 입찰의 부당 여부를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마세라티 뺑소니 사망사고 운전자·도피 조력자 송치 다른 조력자 2명은 영장 기각

‘광주 외제차 뺑소니 사망 사고’ 피의자인 고급 외제차(마세라티) 운전자와 도피 조력자 한 명은 검찰에 넘겨졌지만, 나머지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광주서부경찰은 뺑소니 사고 당시 차량 운전자인 A(32)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에서 A씨에 대포폰 등을 건네주며 도피를 도운 B(33)씨는 범인은닉도피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다만, 다른 도피조력자인 C(32), D(30)씨에 대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당했다.

A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3시 10분께 광주시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추돌해 1명을 숨지게 하고 1명에게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사고를 낸 직후 차량을 버리고 지인 C씨의 벤츠 차량에 탑승해 함께 술을 마셨던 지인 D씨와 함께 대천으로 도주했다. 이후 인천공항, 서울 등지를 배회하다 범행 2일여만에 서울시 강남구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경찰은 음주 채증 공식을 활용해 사고 당시 A씨의 음주 여부를 판독했으나, A씨가 단속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3%)에 못 미치는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A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는 적용되지 않기로 했다.

C씨에 대해서는 단속기준을 웃도는 양의 술을 마시고 운전한 사실을 확인해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추가하기로 했다.

한국도로교통공단 속도 감점 결과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60km 제한 도로에서 시속 81km 속도로 달리고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C, D씨에 대해서도 범인도피은닉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혐의에 대해 인정하고 있고 주거지도 안정적이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취지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중앙선 침범 트럭, 경차 충돌 고흥서 70대 노부부 숨져

고흥에서 중앙선을 침범한 트럭이 경차를 들이받아 70대 노부부가 모두 숨졌다.

고흥경찰은 A(74)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낮 12시에 고흥군 점암면 한 삼거리에서 1t 트럭을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경차를 들이받아 B(71)씨 부부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교차로에 진입하기 전 일찍 좌회전을 하면서 중앙선을 침범해 직진하던 B씨 부부의 경차를 들이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A씨는 무면허나 음주 상태가 아니었으며, 운전자 모두 과속하던 상황도 아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장혜원 기자 hey1@kwangju.co.kr

순천 ‘묻지마 범행’ 박대성 살해 혐의 송치

같은 동네 살지만 모르는 사이
범행 20분 전 경찰과 면담도

순천도심에서 ‘묻지마 범행’으로 귀가 중인 10대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박대성(30)이 검찰에 송치됐다.

순천경찰은 살해혐의로 박씨를 구속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4일 경찰서 유치장에서 검찰로 송치된 박씨는 “범행이 기억이 안 나오, 어디까지 기억이 나

요”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고 대답했다.

“유가족에게 사과할 생각 없다,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냐”는 질문에는 “죄송합니다”고 답했다.

박씨는 지난 26일 새벽 0시 40분께 순천시 한 병원 주차장에서 친구를 배웅하고 귀가하던 A(17)양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도망친 박씨는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가 행인과 시비를 벌이다 2시간 20여분 뒤인 새벽 3시에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씨는 범행 당일 이성 문제와 경제적 문제로 본인의 가게에서 소주 4병 정도 마시다 흥기를 챙겨 밖으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박씨는 거리를 지나던 A양을 발견하고 800m가량을 쫓아가 흉기를 휘둘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씨는 범행 이후에도 흥기를 지닌 채 술집과 노래방에 들러 재차 술을 마신 것으로 드러났다.

박씨는 A양과 같은 동네에 살고 있지만, 알고 지내는 사이는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박씨는 범행 전 20여분 경찰과 만나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박씨가 극단 선택을 할 것 같다’는 취지의 박씨 가족의 신고를 접수해 박씨가 운영하는 가

게 앞에서 술에 취한 박씨를 만나 5분여간 면담을 했다는 것이다.

당시 박씨는 경찰이 묻는 말에 대답을 잘 하고 ‘괜찮다’는 취지로 이야기 한 것으로 전해졌다.

애초 범행을 부인하던 박씨는 영상실질심사에 출석해 “증거가 다 나왔기 때문에 (범행을) 부인하지 않겠다”며 “피해자와는 모르는 사이다. 당시 소주 4병 정도를 마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박씨의 신상정보(얼굴, 나이, 성명)를 홈페이지에 30일간 공개하고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